

2022

여성 은사 주일

“또 칼이 네 마음  
을 찌르듯  
하리니”

라셀 D. 헌터

Forever, Patrícia Alexandra



2022년도 여성 은사 주일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여성의 생존을 기념합니다.

여성 은사 주일이 2022년 3월 6일이지만, 여러분의 교회나  
여성 단체는 여러분이 선택한 날에 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시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젊은 마리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가 직면하게 될 핍박, 마리아도 느낄 수 있었던 핍박에 관해 시므온에게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어머니, 부모 및 가족이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해, 또 공동체, 주 정부, 미국의 경제, 정치, 인종 분위기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앞서 가지 않은 곳에 우리가 가지 않는 것을 인해 우리는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2:22-35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2:34-35).

그 삶의 마지막 시기에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 저곳을 여행하십니다. 그가 아이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청년 예수는 고향에서 첫 설교를 하고 나서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은 치명적인 힘으로 그를 위협하여 절벽에서 내던지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영혼을 찢리는 것을, 즉 그들의 자녀들이 핍박받고, 위협받으며, 죽임을 당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아프리카 계 미국인 부모와 비 백인 부모는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휴대전화 동영상을 통해, 자녀들 안의 그리스도가, 그들 몸 안의 숨결이 총탄에 의해 짓눌리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조지 플로이드, 브리오나 테일러, 아마드 아버리, 산드라 블랜드, 아타티아나 제퍼슨, 머시 맥, 셰이 밴더펄프, 필란도 카스티야, 알톤 스텔링, 프레디 그레이, 타미르 라이스, 마이클 브라운, 에릭 가너, 트레이본 마틴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코비드-19의 창궐, 인종 차별이라는 고질병, 건강하지 못한 정치적,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번지는 와중에, 필수 인력으로서 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경기 침체기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실업 수당도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함께 병원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죽었고, 우리는 그들을 위한 장례식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우리는 아이들이나 손자들을 직접 가르치거나, 그들이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일하는 동안 고립되고 심지어 갇혀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점 하나를 더 씻거나, 셔츠 하나를 더 세탁하거나, 음식 하나를 더 요리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떠들썩한 졸업

행사도 없이 졸업했고, 대학으로 떠났으며, 일부는 우리와 떨어져 있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조부모, 이모, 삼촌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T이 시대가 비록 어렵지만, 희망의 사람들인 우리는 고통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 30:5b).

마리아, 요셉, 아기 예수의 세계는 정말 힘든 조건의 어렵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기 예수가 웃고 웅얼거리고 있고,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를 먹이고 놀아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에게는 놀라운 일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지만, 지금 그는 저기 구유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고 힘이 없는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아프리카 계 미국인 형제가 피를 흘리거나 길거리에서 숨을 쉬지 못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의의 문제로 괴로워하며 절망에 빠진 우리들; Covid-19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우리들; 집에 격리되어 있는 우리들. 우리는 폭 자고 쉬고 영혼을 새롭게 한 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사역과 일이 있고, 교회와 세상은 우리의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범죄자로 취급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칼은 그 흔적을 남깁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찢리자, 피와 물이 쏟아집니다 (요 19:34). 마리아 역시 찢렸고 그녀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쏟아집니다. 십자가 형은 고문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질식, 목마름, 탈진으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조차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눅 23:15b)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아들의 사역을 계속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마리아와 제자들은 모두 함께 있고 성령께서 그들 모두에게 들어오십니다. 저는 마리아가 죽었을 때, 영생이 약속되어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희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눈에서 세상의 빛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그를 보러 왔습니다. 젊은이와 나이 든 자 모두 그의 사역의 일부였습니다. 계급과 성별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인종, 즉 이데올로기적 사회 구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주권자이신 그분을 찬양하고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세주라는 그 좋은 소식은 오늘날에도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 하나님께 대한 예배

## 예배로의 부름

사무엘상 2:1-10에 근거함

인도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회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은 없나이다.

인도자: 여호와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  
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회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  
는도다.

인도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회중: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 추천 찬양

“My Soul Gives Glory to My God” (Song of Mary)  
(GTG<sup>1</sup> 99)

“For All the Faithful Women” (GTG 324)

“Mary and Joseph Came to the Temple” (GTG 148)

“Born in the Night, Mary’s Child” (GTG 158)

“Sing Praise to God Who Reigns Above” (GTG 645)

“Lord, Dismiss Us with Your Blessing” (GTG 546)

## 고백으로의 부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선물을 주시며, 또 우리  
의 상처를 내보낼 기회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와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 회개의 기도 (다같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  
죄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섬기는 삶의  
방식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근시안적  
안목과 죄를 용서하십시오. 다양한 경험과 삶의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당신에게 우리의 신실함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인식하도록 도와 주소서.

## 죄사함의 선포

갈라디아서 4:4-7 를 참고함

인도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  
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회중 :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با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인도자: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  
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회중 : T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성경 봉독

사무엘상 2:1-10

시편 139:1-14

갈라디아서 4:4-7

누가복음 2:25-35

## 설교 참고 사항

### 시작하기

설교를 설계할 때, 성경 구절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  
하십시오. 예를 들어, 마리아의 아이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고 시므온이 말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시므온은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라고  
마리아에게 말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십자가 사건 때 그곳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누가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  
다. 누가는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렸다는 것을 기록  
하지 않지만(요 19:34),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예수  
님의 고통을 마리아는 같이 느꼈음이 분명합니다.

### Preaching God's Transforming Justice: A Lectionary

Commentary, Year B, 에서 루센나 후크는 이렇게 언  
급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주님, 이  
제 당신의 종을 자유케 하시네요'라고 말한 점을 주  
목해야 합니다. 시므온이 자유를 언급한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권세'에게 노예가 되어 있  
음을 생각해 보도록 도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  
유물, 과로, 중독, 과소비, 타인을 착취하는 삶의 방  
식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존재 방식은 단

순히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노예화하는 조직적인 힘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존재 양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포로되었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이 무너졌음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받아들이면, 이 얽매이게 하는 힘으로부터 더 큰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힘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sup>2</sup>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시몬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 설교의 형식

오늘날의 일상적인 설교 형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내러티브 형식을 시도하거나 이야기 설교를 시도해보세요. 복음서의 본문은 이러한 설교 형식으로 전하기 쉽습니다. 이야기 설교에서, 설교자는 해설 없이 이야기(예를 들어, 성전에 있는 마리아, 요셉,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전달하게 놓아두십시오. 질문을 하고 나서, 성인과 아동이 스스로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십시오.

### 축하 예식

인도자: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는 고요한 명상의 시간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모든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감사드립니다.

**회중 :** 우리 몸의 숨결에 대해, 우리의 영과 혼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웃과의 연결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인도자: 화해의 하나님, 갈등이 발생할 때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에게 잘못된 자들을 용서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분쟁 중에 평화를 추구하는 더 높은 소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옵소서.

**회중 :**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여성들을 인해,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믿음과 증거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인도자: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고 기도로 우리를 마음에 품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회중 :** 다양한 성별, 연령, 문화의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상속자가 된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인도자: 창조의 하나님, 당신의 도움으로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섬기며 기억하고 돌아보며 함께 노래하고 기뻐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 파송 및 축도

누가복음 2:25-35에 근거함

인도자: 시므온은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재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데도"라고 말했습니다.

**회중 :**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인도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회중 :**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 프로그램 제안 사항

교회, 노회 또는 대회에서 성취감과 용기의 본이 된 여성을 표창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십시오. 코비드-19 기간 동안, 전문 지도력을 보인 여성, 가정에서 아이들과 가족을 돌본 여성, 특별한 섬김의 본을 보인 여성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고, 종종 개인적인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보건에 있어서의 평등, 인종 및 경제적 정의,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옹호하는 데 큰 용기를 보였습니다. 이 여성들은 봉사과 업적에 대해 인정받으면,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매우 놀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프로그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귀감이 될 것입니다.

라셀 D. 헌터 목사는 켄터키 주 루이빌의 장로교 목사로, 전 언약 대회 총회장이었으며, 전 미국 장로교 인종 평등 및 여성 다문화 사역부 디렉터였습니다.

### 주석

1. GTG 는 *Glory to God!* 장로교 찬송집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13) 을 의미함.

2. Ruthanna B. Hooke, *Preaching God's Transforming Justice: A Lectionary Commentary*, Year B, Ronald J. Allen, Dale P. Andrews and Dawn Ottoni-Wilhelm, ed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11), 41-42.